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모세의 기도처럼 삼시다

시편 90:12-17

¹²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¹³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¹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¹⁵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년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¹⁶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¹⁷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1 부 중보기도 : 행정팀 (7:30am~8:30am)

3 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2 부 중보기도 : 엘리사벳 권사회 (9:20am~10:20am)

4 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4]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 앞에 머리 숙인 자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2. 긍휼의 하나님!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수가 하늘로부터 내려 우리의 때마른 심령을 적시고 영혼의 잔이 흘러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3. 지금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두워진 마음을 성령의 불로 밝혀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변화 받게 하옵소서.
4. 예배를 통해, 호흡하게 하옵소서.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회개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아 회복과 치유, 자유와 살림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5.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게 하옵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주의 백성으로 승리와 소망 안에 살게 하옵소서.
6. 모든 중보자들을 정결케 하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배마다 진정한 회개와 성령 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 부: 권상욱목사님, 2 & 3 부: 김대규목사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 57:5]

1.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2. 찬양팀과 율동팀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찬양과 율동이 되게 하옵소서.
3. 찬양할 때, 어둠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주의 생기가 불어와 영과 혼과 육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4.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김현철목사님, 권상욱목사님, 김상대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이규성장로님, 유병하장로님, 조재훈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 56:10]

1. 한기홍 담임 목사님을 성경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2.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처럼 삼시다(시90:12-17)**’의 말씀을 통해, 유한한 인생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3. 팬데믹으로 닫혀진 공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시고, 가정 예배 처소도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4.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 가운데 사역에 전념하시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5. 말씀을 통해, 세월을 아끼고 믿음의 목표 위에 충성되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 전 성도가 힘을 모아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6. 부흥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은혜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 선교지와 열방을 깨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천번제 새벽기도 (4/10/2021 까지)

Grace Encounter(12/6)

성경 퀴즈 대회(12/12-13)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설교시간에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여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모든 예배 제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가 들려지는 곳마다 거룩하게 하옵시고 오빠애들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자자손손 복을 받고 번창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세상이 강함을 자랑할 때, 인생의 악함과 한계 앞에 겸손히 무릎꿇고 주를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미지근했던 믿음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4.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5. 위로, 치유, 소망, 용기, 자유를 체험하고 감사의 찬미가 하늘 보좌를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뒤에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체들을 축복합니다!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8:9)

1.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마다,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더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3.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4.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5.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1. 공예배의 회복과 가정 제단의 회복과 성장이 임하게 하옵소서!
2. 유한한 인생에 영원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도 기쁨과 복락을 누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3. 주일과 금요 성령집회 말씀,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를 통해 매일 매일 능력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4.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중에 준비하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공홀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자녀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2.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3. 세속에 물들지 않고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터처럼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역사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 속에 파워있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4. 청소년들을 각종 유혹과 중독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5. 공교육을 성경적 기초 위에 다시 세워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6.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온라인 학업이지만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7. 2021 년도를 새로운 비전과 도전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을 위한 기도

1.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 낙담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옵소서.
3. 예배를 통해,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4. 가족들도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5.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6. Jesus' Light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7. Jesus' Light 성도들을 위한 비디오 예배를 통해,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세계 선교를 강건하게 감당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서울 은혜교회가 하남시에서 새 부흥을 일으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정체성과 믿음의 궤도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3.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질병과 각종 위험에서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2.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혔던 선교와 현지 사역들을 다시 열어 주시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3.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4.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열정을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건축중이신 선교사님	항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 박원근 선교사님/ 황광식 선교사님(케냐)- 교회 옆에 땅으로 모슬렘 사원이 들어서려고 합니다. 건축이 중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코로나로 한국 체류 중이신 모든 선교사님이 속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 박윤수 선교사님(페루)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필요한 빵과 구제품을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통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 김경순 선교사님 (노보시비르스크)- 성전건축 • 김정훈 선교사님 (B 국) - 성전 건축 : 골조 공사 마무리 되었고 외벽/ 내부 공사 및 안전을 위해 • 이광섭 선교사님 (필리핀 기쁨의 교회 건축 마무리) • 김득원 건축선교사님 (태국 선교센터 건축) • 최운섭 선교사님 비타 교회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 이예신 선교사님 (A 국)- 입원치료중이십니다. • 유인숙 선교사님 (C 국) 선혼 3 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해영 선교사님(T 국)- 암이 왼쪽 영치뼈로 전이 됨: 깨끗이 치유되도록/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도록 • 정광수 선교사님 식도암	• 김경순 선교사님 (노보로지스크) 허리, 목, 디스크 치료 중이십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봉년 선교사님 (첼라빈스크) 전립선제거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창모 선교사님 (터키)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덕, 신미선 선교사님(태국) 턱에 혹이 생겨 제거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가슴과 갑상선에 있는 혹들이 사라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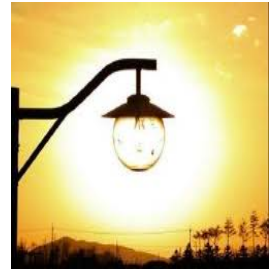
미국을 위한 기도

1. 이 나라의 리더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은 문제보다 질병보다 불경기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대통령 선거 최종결과에 하나님의 비상 개입을 기도합니다. 공정한 판결이 나오게 하옵소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번에 명확히 밝혀지고 징계 됨으로 다시는 선거 부정이 없게 하옵소서. 새 행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르침을 지키게 하옵소서.
3. 내년 1월 3일, 조지아 주 2석을 놓고 연방상원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연방상원 다수당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4. COVID-19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면 예배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가 흔들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부흥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정부에 지혜를 주셔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5.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맞는 2020 성탄절에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 **미국인 60%, “종교 자유 보호돼야 한다”**
- **미국 대선 종합- 트럼프 법률팀, 네바다에서 4만 명 중복투표 증거 확보**
- **원정출산 주선한 뉴욕 조직 적발** : 터키 임신부들을 상대로 미국 원정 출산을 주선한 조직이 적발된 가운데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검이 터키인 4명과 미국인 2명을 사기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 **미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개설** : 알렉스 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일 중국이 지난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편,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국무부 웹사이트도 개설됐다고 밝혔다.
- **실내 예배 금지 재검토** : 하비스트 락 교회 가처분 신청
- **프랭클린 그래함, ‘민주당 내 LGBT’ 위험성 경고**
- **미 오클라호마 주지사, 코로나 극복 위한 ‘금식의 날’ 선포**



“자기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어느덧 2020년을 보내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GMT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코로나 펜데믹으로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님들의 영적 쇠퇴를 경계하며 영적 부흥을 위해 최선으로 예배사역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100일 특별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고난주간 새벽부흥회, 창립 부흥성회, 한여름 성경집회, 2주간 JAMA 중보기도 특별 새벽기도회, 추계 부흥성회,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추수감사 부흥회를 하였고, 일천번제 새벽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최선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양육과정도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마쳤고, 저는 부목자 세미나 강의를 마쳤고,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를 갖습니다. 야외에 텐트를 치고 집회를 하게 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하는 주말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안수기도 해 주던 것이 얼마나 그립고 사모가 되는지요. 이런 형편에도 주님께서 사모하는 분들에게 은혜주시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무리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가운데 교회가 전 세계 GMT 선교사역을 그대로 지원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도 주님의 은혜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에 귀하신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2월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금년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정상적인 모임을 갖지 못하고 지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룹별 성가제를 하였는데 처음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가제 대신 그룹별 성경퀴즈대회를 통해 말씀부흥을 기대하며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 읽으며 연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펜데믹가운데서도 성탄절의 감사와 기쁨만은 잊어버릴 수 없기에 최선으로 성탄축하 예배를 준비해야 겠습니다. 펜데믹으로 모든 모임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테코팀장 김경숙 권사님을 중심으로 귀한 성도님들과 교역자들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장식이 은혜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테코팀들에게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에 건강하시고, 날마다 바이블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천번제 새벽 기도하시면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한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온가족들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범사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몸된 교회가 올바른 기초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2 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새해 일정을 계획하기 어려운 오늘입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은 은혜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외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은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가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기초와 터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교회의 터로 예수님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 장에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 모여 남의 험담을 하고도 신앙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성도를 오히려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육신을 입고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며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단 한번밖에 없는 자기의 삶을 손님처럼 살고 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은 원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자기 자신을 맡겨 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기 자신만이 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도, 또한 교회생활에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주인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의무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과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 그리스도인의 사명(본회퍼)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하였습니다. 그가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세계 대전에 광분해 있었으며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의 교회는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유유히 조국 독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날 그의 일기장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학정에 침묵만 지키고 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 재질을 알고 있던 미국의 교회는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본회퍼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웠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본회퍼는 행복한 인간이었고,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걸어갈 방향과 목표와 할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 스테판 올린의 꿈

뉴 잉글랜드 감리교단의 하나의 빛이었던 스테판 올린은 한때 그의 사역에 대하여 크게 낙심하고, 목회직을 떠나려고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심장한 꿈을 사용하셔서 그의 영적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는 자기가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깨 곡괭이를 들고 일하고 있는데, 팔에 힘을 주어 바위를 치고 또 쳐도 표면이 조금도 부서지지 않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더이상 일하지 않을테야"하고 소리쳤다. 갑자기 한 위엄있는 나그네가 그의 곁에 나타나더니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읍니다."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그만 두려고 생각하느냐?"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깨어지든 너의 임무는 쫓개는 것이다. 오직 그 일만이 네 손안에 있는 것이지, 그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 계속하라!"

그는 힘드는 수고를 다시 시작하였다. 갑자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다. 스테판 올린은 꿈에서 깨어나 충성만이 그에게 요구되는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 일을 다시 되돌렸고, 얼마 후에는 그의 사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과업에 대하여 결코 낙심하지 말라. 함당한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출처: [Lectio Divina]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 40:31]

청교도 400 주년 기념 각 주제별 기도제목

1. 우리가 제 2의 청교도가 되어야 합니다(한기홍 목사님)

1. 청교도의 신앙을 보시고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인들이 청교도의 성경 사랑,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몸부림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통하여 한국에 청교도 신앙을 전수 받게 하셨는지, 미국이 성경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 때에 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3. 미국이 살 길은 청교도 신앙 회복임을 알게 하시고 미주 한인들이 제 2의 청교도가 되고 이 나라 신앙 회복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옵소서.

2. 청교도 그들은 누구인가? (허연행 목사님)

1. 우리가 제 2의 청교도가 되게 하옵소서.
2.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3. 이 나라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4. 미국과 세계에 부정 선거가 뿌리 뽑히게 하시고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게 하옵소서. 공정한 선거 결과가 나오게 하옵소서.
5. 이 나라와 고국에 다시 한 번 대부흥을 허락하옵소서.

3. 청교도의 예배회복과 주일성수 (이성철 목사님)

1. 청교도와 같이 우리도 예배와 말씀 실천에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2.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3.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데 불을 붙여주옵소서.
4.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가 소홀해졌는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5. 부모가 가정의 목자 역할을 하며,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6. 주일을 거룩히 보내게 하옵소서. 주일이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4. 청교도의 자녀교육과 가정 (이재호 목사님)

1.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 오늘날 미국이 청교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떠났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 부모들은 자녀 앞에 말씀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함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4. 교육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5. 청교도의 감사 생활 (강민수 목사님)

1. 청교도들이 미국 도착 첫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절반이 죽은 상황에서도 감사예배를 드렸던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 코비드-19으로 인해 여러가지로 어려웠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3. 우리에게 귀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4. 우리에게 제 2의 청교도의 사명을 주셔서 미국의 신앙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6. 청교도가 세운 위대한 나라 (위성교 목사님)

1. 이 나라가 청교도에 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3. 나라의 위기마다 부흥을 주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 말씀 부흥을 통해 미국을 타락시킨 인본주의, 세속주의, 탐욕주의로부터 미국을 구해주옵소서.
5. 이를 위해 이 나라 교회의 강단에서 의의 말씀이 권능있게 선포되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7. 청교도의 기도 생활(호성기 목사님)

1. 청교도들이 위대한 신앙유산을 남겼던 동역이 기도로 인한 성령충만이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 호흡처럼 기도했던 청교도들에 의해 복음과 사랑으로 세계를 섬기는 미국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3. 우리 한인들이 기도로 제 2의 청교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로 미국을 다시 살리게 하옵소서.
4. 미국에 기도를 통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로 나라와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5. 이 나라에 부정 선거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합법적인 투표와 결과에 의해 대통령과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6. 고국에 기도 부흥을 통해 영적대각성이 일어남으로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8. 청교도의 거룩한 삶의 추구하고 성령충만 (진유철 목사님)

1.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질병보다 불경기보다 크신 분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2.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충만 받게 하옵소서.
3. 성령충만의 결과로 거룩한 삶, 능력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4. 우리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과 예배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5.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알고 성령의 비추심에 따라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6.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7. 한인 성도들이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계승함으로 제 2의 청교도가 되게 하소서.

9. 청교도의 일터에서의 삶- 직업관(양준길 목사님)

1. 청교도들을 통해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이고 사역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 우리가 일터에서 이웃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3.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재물을 절약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4. 우리가 일터에서 정직하고 기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5.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우리는 일터의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10. 청교도의 재정관리, 유산 상속 (이은상 목사님)

1. 청교도를 본받아 우리 경제활동의 이유가 욕구, 이윤추구, 사치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게 하옵소서.
2.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아 직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는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알게 하옵소서.
3. 모든 경제적 이익이 내것이 아님을 알아 근검 절약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나라 확장,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5.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선교단체,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6. 우리로 제 2의 청교도가 되어 이 나라의 부흥과 회복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11. 청교도의 가정 예배 (권 준 목사님)

1. 가정 예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부터 세워지게 하옵소서.
2.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어 가족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3. 말씀의 전수, 신앙의 전수는 부모의 사명임을 깨닫고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4.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옵소서.
5. 자녀들이 바른 목적의식을 갖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12. 청교도의 교육과 회복 (김준근 장로님)

1. 가정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임을 알아 부모가 자녀 앞에 모범이 되고 가정 예배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2. 공립학교 교육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일어나 학교를 시작하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게 하옵소서.
3. 이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공립학교가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4. 미국의 대학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무신론자들, 다문화주의자들, 동성애 옹호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JAMA가 세우고자하는 린데일 캠퍼스 대학이 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5. 한인 크리스천들이 제 2의 청교도가 되어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World Prayer Center

기도지 제작 : 은혜 한인교회 중보기도국
문의 : gracewpc.com